

CHRIST OUR SAVIOR

“(24)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make you stand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blameless with great joy, (25)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 (Jude. 24, 25)

Jude 24 and 25 are the concluding words of Judah, Jesus' brother, in his letter that defended the apostolic faith against false teachings than were arising in the churches. It is one of the great benedictions of the New Testament. In this beautiful blessing, believers find the fundamental safety features of faith in Jesus Christ. Living in a sinful world, surrounded by temptations like addicting drugs, greed for money and power, adulterous sex, and desire for fame, is dangerous. The risks are everywhere, and no one but Christ our Savior can help you overcome all the influences that pull humanity down. He is the one who can take away your fears, eliminate your depression, ease your sufferings, and make your pathways clear. He is the only one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His divine power not only protects you from falling, but also keeps you blameless. You can stand before God's glory with great joy because Christ cleanses you from all sin. He upgrades your status from sinful to holy.

Jesus Christ is the one who keeps you from falling into darkness. He is the only one who keeps you in the love of God until eternal life. The terrible threats and perils of evil cannot overcome those with faith in Jesus Christ. When you are lazy and neglect your duties in reading the Bible, praying, fellowshiping with God and other Christians, Jesus helps you up. Those times when you walk back wards and do not care, looking to the world for comfort, Jesus is there to keep you from falling. Honestly, even though you cannot trust yourself because you have faltered and failed so many times, do not worry, for there is safety through Jesus Christ. Actually, there is no other safe place anywhere on this earth or in the universe. There is no safety in your church, house, prayer mountain, teacher, morals, or laws. These things cannot keep you safe. Only Jesus can protect you from the devil's attacks.

Sadly, churches all over the world are falling away from biblical doctrines. The importance of the cross is diminishing while the importance of human belief is increasing. When the gospel does not take center stage, church members stop denying themselves, and unbelief, deceit, cowardice, and hate seep into their souls. Their lack of discernment and love lead to utter destruction. 2 Corinthians 5:10 reminds us,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Every person ever born will face God, but no one can stand before Him except through Jesus Christ. He is our lovely God, mighty God, and wonderful Savior. He saves us from falling into sinfulness. His Holy Spirit tells us that there is only one God and only one Savior, and He directs and guides us with God's Word through this life,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 3:16). Only through Jesus Christ can eternal life be yours,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5:12).

Jesus Christ is the One who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stand blameless before God's glory. Even from Old Testament times, God always required a blameless sacrifice for sin. You are saved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 Pet. 1:19). Jesus loves you. He died "so that He might present to Himself the church in all her glory, having no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Eph. 5:27). Even though this world tempts you, and Satan continually tries to drag you in the dirt, Jesus' blood has the power to wipe all your sins away,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Not only that, but He has the power to bring you into His glory. Ephesians 1:4 also tells us,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Only Jesus will give you a royal presentation before Almighty God. Only He can make you holy and blameless.

Jesus Christ is the One who leads you to victory and joy. He is the one who causes you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He will bring you to the glory of God, and you will see Him face to face. Your heavenly eternal home that Jesus prepared just for you is awaiting your arrival,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 (2 Cor. 5:1). Not only that, but all God's people will hunger and thirst no more, "for the Lamb in the center of the throne will be their shepherd, and will guide them to springs of the water of life; and God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Rev. 7:17). This great joy comes from faith in Christ. Can you imagine anything more enjoyable?

My dear friend, Jesus Christ is your Savior. He is alive. He is God. Only through His wisdom, power, and authority will you not stumble. He will make you blameless. Give you victory and glory for eternal enjoyment. This is His plan. His earthly brother confessed,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make you stand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blameless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 

다음 주일 설교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이다 아멘”(유 24,25절)



김성관 목사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당시 교회 안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사도적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대목인 24, 25절 말씀은 신앙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축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도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안전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좌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마약 중독,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간음과 명예욕 같은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도우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낙심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큰 즐거움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됩니다.

죄는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흑암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위험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분은 게으름에 빠져서 성경읽기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이따금씩 여러분의 신앙은 뒷걸음질들을 치고 여러분은 세상의 편안함을 바라보는 데 정신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격려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우리 영혼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다니는 기도원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립들도, 도덕이나 율법도 우리 영혼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신념은 중요해지고, 신자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며, 불신앙과 속임, 비합당과 중요가 교인들의 삶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사랑을 잃어버린 까닭에 교인들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육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도 오직 한 분뿐이시고 구주도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속죄제물을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벧전 1:19a) 구원을 받았습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타나 주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엡 5:27 참조) 축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좌악으로 끌고 가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승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쁨 곧,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벧전 1:4).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는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잡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냐”(고후 5:1).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지혜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7). 이처럼 위대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쁨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흠이 없게 하고, 여러분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사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고백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이다 아멘”(유 24,25절).

권사칼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가길



오 화 자 (권사회 1차회장)

올해는 유난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요! 특별히 올해는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베풀어지는 권사수련회는 권사회의 여러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입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여러 달을 준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주셔서 풍성한 잔치를 열게 하십니다. 권사수련회는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들에게 여름수련회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좋은 일가를 달라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달라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강을 통해서도 진리를 통성히 맛보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순서를 맡은 일꾼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건강과 기대와 초조함으로 짜릿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500명에서 600명의 권사님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만사를 미루고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며칠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지체가 곧 은혜의 잔치입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고단한 삶을 살지만,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련 기자의 고백을 더 잘 이해할 듯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운 마음을 양양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시 73:4). 주님의 곁에 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양양하며 사는 것! 노년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주님의 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어린이가 되고, 비록 걸 사람은 후배보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후배에게는 걸 사람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죄없이 깨끗하신 주님이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우리 인간들 위에 열매까지 군림하시도 합당하실 터인데,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양으로, 아세살 양으로 오셔서 회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이 만개가 되고 우리의 손발이 만개될지라도, 그 사랑에다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용만만 것이 없는데 벌써 60대 중반에 와 있으니 여성 후회 업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날을 개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게다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둠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전 12:1-2). 세월이 갈수록 더 두렵게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 이 세상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느껴집니다. 저의 몸의 기억이 더 쇠약기 전에, 이렇듯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우리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서둘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목사칼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름은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다. 대지의 열기가 밤이 되어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뜨거운 바람이 화확 불어올 때는 숨이 목에까지 턱턱 막히는 것이 확실한 여름입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는 또 다른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열풍입니다. 매주 금요일집사시간마다 선교를 다나온 팀의 선교보고와 파송 받은 선교팀을 위한 기도나 감동과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 앞마당에서는 복음을 들고 다니는 선교팀들의 바스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17교구에서는 7월 한 달간 8개 지역 선교팀이 집중적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70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복음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허락하시는 날까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충현의 성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충현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말하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해

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할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께 부름 받은 후에 일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고전 9:16).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물로서(신 21:22) 매우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고전 1:23).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요 1:29).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고통을 개지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저주셨습니다(히 12:2). 또한 우리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며 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로 3:2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로 10:13).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확신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로 1:16).

임현태 목사(17교구 지도)

선교를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부지런히 언어를 읽고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에 질려 '어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낙심하다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또 한번 잠깐 놀란다.

그렇다! 복음에 빚진 나에게 주어진 이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의 열심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 가장 약하고 낮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구로 선택된 나야만 장군의 계집종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한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여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매주 모여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부정적인 소문과 의견들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불안했다. 그러나 주님은 혼란이 거들쭉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하는 기대가 생긴다. 70인의 제자가 파송된 후 기뻐 돌아와 예수님을 보고싶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느님 서 반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8-19) 하신 말씀에 위로와 확신을 갖는다. 준비모임을 통해 मिल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길 기도한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이 옥빛같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한다.

매주 오후 때마다 믿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 아름다운 선교 보고를 드리기 위해 소원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다. 나의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황 철 (집사, 4교구)

선교지에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팀원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길 것을 믿고 간구하였다. 다행히 마나는 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우리 팀은 현지에서 통역을 구할 수 없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팀은 그 지역 언어를 열심히 배워갔으나 그들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겨우 인사할 정도만 알아들었다. 정말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는 심정이었다. 그들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외모가 잘생겨 우리는 그들 앞에만 서면 자꾸 위축이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하였다. 우리가 정말 어찌해야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묵는 숙소 주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우리 팀은 3조로 나누어 조심스럽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차가워 보이던 그들의 표정과 달리 그들은 마음이 무척 순수해 복음을 잘 받아드렸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진지하게 전도지를 끝까지 다 읽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그 나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언어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처음부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고 복음의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이번 선교를 통해 더욱 깊이 체험하였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에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드린다.

황철희 (집사, 2교구)

구원의 시작

시절 때 '이반에는...'하는 어떤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역시 떠나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집사님들은 때때로 이어서 언어의 제약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 어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불리서 "이것을 읽어 보세요"하며 전도를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의 전도의 열정은 야근이라도 그 답대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실행될 수 없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30도씨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차가워지는 봄소식이 되지 않았다. 선교지에서의 날들이 지내면 지로와 서로의 육신은 안락해져 갔지만 참고 이겨나가는 집사님들의 모습은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전도를 하다 만난 사람들 중 어떤 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예의를 갖추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

아냥거리는 사람, 냉소를 퍼붓고 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 나타나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떤 사람은 건넌 전도지를 천천히 다 읽고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고맙았다. 우선 그 진지함에 고맙고, 전도지를 다 읽어 주어서 고맙고, 또 돌려주어서 진도지 한 장을 아낄 수 있어서 고맙다. 전도를 하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친히 경건한 일들이라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분이 지난 자금 내 오늘 이곳에 보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나라의 황창이라는 역사가를 보게 되었다.

"다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흑 백 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 13:8).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다 옥토에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한다.

박영규(집사, 8교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30일(금)-8월 9일(월)	대학부29	윤운수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8	윤준국
8월 2일(월)-8월 10일(월)	8교구 8지역	남승호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3	박석두
8월 2일(월)-8월 10일(월)	대학부30	김은선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39	권운호
8월 2일(월)-8월 10일(월)	대학부31	임영숙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37	이성돈
8월 2일(월)-8월 11일(수)	대학부32	조영구	8월 4일(수)-8월 14일(목)	14교구 2지역	전은배
8월 2일(월)-8월 13일(금)	1교구 6지역	김대용	8월 4일(수)-8월 14일(목)	고동부3	나승은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동부1	홍원식	8월 4일(수)-8월 14일(목)	고동부4	최세진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동부2	함철주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5	김윤환
8월 3일(화)-8월 11일(수)	14교구 5지역	박종률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36	유병식
8월 3일(화)-8월 11일(수)	16교구 7지역	양병진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4지역	이상복
8월 3일(화)-8월 12일(목)	1교구 3지역	구원섭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6지역	김민태
8월 3일(화)-8월 12일(목)	2교구 5지역	박창식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9지역	이영희
8월 3일(화)-8월 12일(목)	5교구 4지역	정태동	8월 5일(목)-8월 12일(목)	13교구 3지역	권영주
8월 3일(화)-8월 12일(목)	8교구 1지역	김준선	8월 6일(금)-8월 13일(금)	청년115	유무현
8월 3일(화)-8월 12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6일(금)-8월 14일(목)	4교구 1지역	이성식
8월 3일(화)-8월 13일(금)	11교구 5지역	박호웅	8월 6일(금)-8월 14일(목)	11교구 2지역	김철환
8월 3일(화)-8월 12일(목)	대학부34	하형철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9일(월)-8월 18일(수)	11교구 3지역	서성식	8월 12일(목)-8월 20일(금)	8교구 5지역	추병창
8월 9일(월)-8월 16일(월)	청년116	한승규	8월 12일(목)-8월 20일(금)	13교구 1지역	임원석
8월 10일(화)-8월 18일(수)	5교구 6지역	김우현	8월 12일(목)-8월 20일(금)	16교구 1지역	김병권
8월 11일(수)-8월 20일(금)	4교구 6지역	박정환	8월 13일(금)-8월 21일(토)	12교구 4지역	정원근
8월 11일(수)-8월 18일(수)	5교구 5지역	복봉선	8월 13일(금)-8월 21일(토)	17교구 8지역	한승호
8월 11일(수)-8월 20일(금)	18교구 4지역	전학재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16일(월)-8월 25일(수)	9교구 10지역	박문태	8월 17일(화)-8월 24일(화)	1교구 4지역	김진식
8월 16일(월)-8월 25일(수)	9교구 3지역	홍승호	8월 17일(화)-8월 24일(화)	2교구 7지역	김문섭
8월 17일(화)-8월 25일(수)	대학부40	김강준			

"포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a)

2004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주한성경공부

2004년 9월 16일(토) ~ 11월 16일(수), 10주 간

열왕기상 · 하

화요일, 19:30~21:00 / 안치원 목사 / 제1교과관 304호

열왕기상 · 하는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결국 패망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사는 구약의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중요한 사실을 단순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교훈을 밝히고 보존하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안락을 지키는 왕과 국가는 지키지만 안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잔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원수들의 반대와 그의 복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목자적인 것을 아끼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역사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간성시한 인간의 백성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안락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화요일, 19:30~21:00 / 류병의 목사 / 제1교과관 309호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한세대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사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11가지 이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란함 때문에 교회의 존립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한가지의 신학적 원칙, 즉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기쁨과 능력이 된다는 원칙 위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즈를 한국교회에 십자가 복음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 정체성의 상실된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한가지의 신학적 원칙, 즉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기쁨과 능력이 된다는 원칙 위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화요일, 10:00~11:30 / 이태복 목사 / 제1교과관 304호

야고보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인 말하지 마, 그러다가 해를 로마서처럼 믿음에 대한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관심사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보다 믿음에서 우리나오는 생생한 삶에 관하여 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한 나날 안에 이슬과 같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등등.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예적인 지식 및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야고보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행위를 위한 행위를 배우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본적인 확신과 이해를 갖게 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경건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귀한 책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수요일, 14:00~15:30 / 안창덕 목사 / 제1교과관 207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한국의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락의 가나안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하신 구원을 얻고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공부할 수 있다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가는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벧전 5:8).

전도서

수요일, 14:00~15:30 / 정진호 목사 / 제1교과관 309호

전도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락의 탐욕과 시도를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파상적인 소망, 행복, 기쁨에 대해서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전 1:2b). 성도란 이런 파상적이고 헛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방랑자'가 아닌 '사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지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돈과 죽음의 문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나의 삶을 재검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전도서 공부 기간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수요일, 14:00~15:30 / 김경호 목사 / 제1교과관 307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되고 세상 모든 민원을 죄로부터 구하시길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만 같은 교회들이 많고 또 친단 단체들이라는 마음 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 이들은 사탄의 의미와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나침반은 완전히 망가지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영혼의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예외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영적 나침반이 망진 사람이 있어 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와 열매를 맺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수요일, 14:00~15:30 / 김경호 목사 / 제1교과관 301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 신당으로 돌아간다 하다고 말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출발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어는 것이 옳아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성경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감동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하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던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미치지 못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행 20:24b)라고 고백하며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수요일, 14:00~15:30 / 양재용 목사 / 제1교과관 304호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집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중심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도 로마서 공부에 겸손한 태도

를 가지고 도전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더 이상 소망 없는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과 행방이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사 양성부

2004년 9월 12일(주일) ~ 11월 28일(주일), 12주 간

매 주일 15:00~16:30, 배다나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지만, 실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여 주저하는 교사들! 교사양성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실제적인 자질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으려는 훈련, 성경연구방법과 실재를 익히는 훈련, 성경연구법과 분반성경공부 지도법을 배우는 훈련, 구약과 기독교와 교회론 등 기독교의 전반적인 학제를 익히는 훈련, 심방의 자와 이론을 배우는 훈련, 반목회 훈련을 배우는 훈련 등 다양한 실제적인 훈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영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신실하고 유능한 교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교육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대원 양성부

2004년 9월 12일(주일) ~ 11월 28일(주일), 12주 간

매 주일 오후 15:00~16:30, 제1교과관 304호

신령한 진전을 부르고 싶은데,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음악적 소질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전에 좀 더 훈련을 받고 성음소리를 찬양대원 양성부 오십시오. 탁월한 장사직과 참 뛰어난 훈련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성훈련과 합창 연습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훈련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대원의 자세와 영적인 찬양에 대한 귀중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 신청은 교육국으로, 자세한 문의는 찬양위원회(교한 258방)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전도대원

2004년 9월 8일(수) ~ 11월 3일(수), 8주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나사렛홀

일차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사
9월 8일	전도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전도 의무	
9월 15일	전도의 내용	전도할 내용에 대해 이해	
9월 22일	전도의 방법과 내용	전도할 방법과 내용	
10월 6일	전도실습 1/교주부전	전도실습	빙준영 목사
10월 13일	전도의 실제적 문제	전도 시 부딪히는 실제적 문제	
10월 20일	전도방법 및 반대문제	전도방법 및 반대문제	
		면담문제에 대한 해결	
10월 27일	전도실습 2/영교회전	전도실습	
11월 3일	수료예배	예배 및 수료식	

*참가신청 접수: 다음주일부터 교육국(제1교과관 2층)에서

*자세한 일정은 본관 방과외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회탐방 ⑨ 안내실

교회의 24시간 지킴이들

우리 교회는 큰 건물 네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각 건물마다 수십 개의 방이 있고 각 방에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다. 오늘은 이것들의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관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안내실 직원들을 만나보았다.

현재 안내실은 일곱 분이 A, B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 8시 40분에 직원예배를 마치고 전날 근무자와 교대하면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선 미화부의 청소를 위해 필요한 문들을 개방하고 사무실에 접수된 장소신청시간표에 따라 각 부실의 문을 개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공중에 하는 주차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드릴 것입니다. 봉당 앞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과 월요일 새벽기도회 때만 개방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주일에는 05:30~20:00, 수요일 예배 때는 10:00~15:00, 금요일 오후 17:00~22:30까지 개방합니다. 제2교육관 지하주차장은 주일에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관 뒤뜰과 선교 앞 앞뒤, 교육관 앞 주차장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주차하실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 꼭 주차선에 맞춰 주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심한 매연으로 화단이 오염되기 때문에 차 후면을 화단 쪽으로 향하게 주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거리를 가실 때 밤 교에서 주차하실 분은 주차관리에 자질이 없도록 꼭 동문 안내실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성도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방에서 적은 인원이 전등들을 모두 켜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조명을 사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방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분은 꼭 소등을 하셔서 교회의 귀한 재정을 내 것처럼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를 할 때나 기도할 때 개인 물품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편안 마음으로 나오는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요구에 모두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칠 때 순서가 늦어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이해해주시며 최선을 다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저희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질서 또한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방 인터뷰를 마는 중에도 안내실 집사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셨다. 차량출입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문 개방 시간이 되어 자리를 비우기도 하셨다. 또 외부인의 문의도 있었다. 1년 내내 명절도 없이 24시간을 근무하시려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여 웃음 지으며 대답하셨다. 안내실 집사님들을 보며 주님께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안내실의 한 집사님이 하신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저에게 이곳은 직장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 수년을 일해 왔지만 매일 교회에 오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장/편집실

다움 주일 찬송

203장 "나 행한 것으로"

다움 주일 찬송 '나 행한 것으로'는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는 행위로 말마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장해보자.

1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것이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있어야 구원될 바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감격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4절: 오직 의지할 분은 은혜의 하나님 밖에 없으며 사람과 그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고 부활이 생명의 주께마다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찬송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목장하여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49	김계열	8	장년2부	오익수(8)	2370	김병진	19	고등부	
2350	양정준	1	소방부	박광식(1)	2371	심종보	19	고등부	
2351	석원준	19	청년1부	이인창(7)	2372	정재준	19	고등부	
2352	고정일	19	청년1부	조순진(7)	2373	박성민	19	고등부	김화순(11)
2353	서환원	1	장년2부		2374	이향란	19	외선부	박미연(15)
2354	오경아	2	장년1부	장정호(2)	2375	최왕성	18	장년2부	최홍섭(11)
2355	이명희	1	장년1부	정준근(9)	2376	김혜서	19	청년1부	한진숙(8)
2356	서술원	19	고등부	김지연(5)	2377	윤종률	19	대학부	권진희(8)
2357	김진태	19	고등부	조영택(6)	2378	오상금	19	대학부	송한영(19)
2358	김재익	19	중등3부	김종오(9)	2379	윤경원	1	청년2부	
2359	심재현	14	장년1부	김유순(14)	2380	김남해	19	청년1부	이문구(15)
2360	이진희	19	청년1부	김영도(5)	2381	박혜연	19	예배다부	채경환(19)
2361	이대현	8	소방부	전용해(8)	2382	송준하	10	새경원(19)	
2362	심석진	8	장년1부		2383	한승진	19	청년1부	양원수(9)
2363	김영훈	1	장년1부	이현숙(6)	2384	이상형	6	장년1부	박창용(7)
2364	김지수	19	고등부	박도경(11)	2385	조성민	19	고등부	
2365	장형호	16	장년1부	송영준(17)	2386	윤성환	4	청년2부	양성진(19)
2366	우상혁	19	대학부	이한호(11)	2387	김종국	15	장년2부	
2367	마리온	1	청년2부	이진규(6)	2388	김경화	1	장년1부	
2368	최용성	19	대학부	송영애(11)	2389	송기연	8	청년1부	
2369	최금순	9	장년2부	최금숙(12)	2390	이정아	19	청년2부	최홍섭(15)

* 송총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1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호스피스봉사단 월례회
일시: 20일(금) 18:00~19:3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별 세

- 정영애 씨 임병집 집사의 모친, 이정숙 집사의 시모, 8교구 중곡2구역
4일 별세, 6일 장례
- 하아지 씨 김위자 집사의 모친, 이영식집사의 장모, 13교구/6일 별세
8일 장례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기 바란다.

1. 감사기간 :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제1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산표 2부(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 2004년도 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1. 감시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시대상: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대상기간: 2004년 2월~6월
4. 감시장소: 감시위원회실 (제1교육관 302호)

2004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제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제자	장소
8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교인 (임명직 목사)	교육관 303호	세제자 (하영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제관 (장진호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2일 (주일)	전야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적령, 전례,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예배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강일라로 2층 203호에서 일일예배	

◆ **현역장병 주소파악**

교회에서 발간하는 신인물들 신앙 증진 목적으로 전후방 현역장병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주소로 반송량이 많아 정확한 주소를 다시 파악하고자 한다. 보훈 중인 양식에 의거하여 2004년 9월 5일(주일)까지 제출할 것 바란다. (제출양식은 군전 도회에 비치되어 있음)

◆ 남·녀전도부 월례회 참석대상자 변경

8월부터 남녀저도분 월례회의 참석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남대진도부 연합회장 월례회	남대진도부 전도회장 월례회
대 상	각 교구 남녀 연합회장	각 교구 남대진도부 전도회장 (배교, 배도교, 요한, 한나 예스다, 루디아, 미리아)
일 시	매월 넷째 주일 15:00	매월 넷째 주일 15:00(22일부턴)
장 소	전도위원회 회의실	배리나홀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주일)
설교자/기도자	고광환/김은호	김익환/정운환	이경준/동방웅운	최종철/조영철	김준희/문효식	이희식/전은희	김교성/김영순

예배담당 안내 (8/18~8/22)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8/18	수요 I		방광영 임영숙	기도할 때에(6:1-13) 나경원 목사
8/18	수요 II		김준희 박인애	말씀의 능력(37:1-6) 박인기 목사
8/20	금요집회	테니 김강진/소르티노 율지영/소망주 중장단	찬양인	이태복 목사
8/22	주일 I		최성규 권영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루 24:25) 이창수 목사
8/22	주일 II	귀한신 주여 날 돌보시와/가브리엘 중장단(제2회 초주한)	김익찬 윤석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루 24:25) 고광환 목사
8/22	주일 III	네 주님 임오신 그 웃음 외/소르티노 이하나/탈렐마워 관현악 앙상블(요 1:1-18)	여국근 이태훈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루 24:25) 방정원 목사
8/22	주일 IV	예수로 나의 죄를 삼고/트림캣 이기쁨(제2회 초주한)	이재영 김진호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루 24:25) 이성진 목사
8/22	주일 V	감리교신 위에/바울로 이영철/베넬로 코스티아	이태복 이태훈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루 24:25) 안치원 목사
8/22	주일찬양		나경원 이대식	회복(골 1:21-23) 장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제)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제)	본 당
	V 오후 3:00 (캘슨국가 드리는 제제)	본 당
친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월 11일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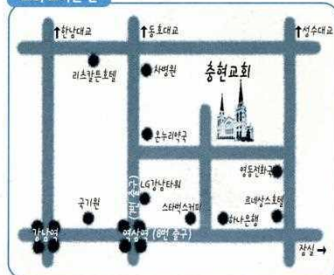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영아부	오전9:00 11:00	교육관 110호	청년2부
유아부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청년1부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청년2부
유년부	오전10:50	교육관 307호	성남1부
초등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성남2부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성남3부
중등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성남4부
중등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대학1부
중등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대학2부
고등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학3부
대학부	토.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장신대학교교수
청년1부	중.토. 12:00	제2교육관 4층	국회대학교교수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절야	오후 11:0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시 간	장 소
2주12:20	교육관 501호
2주12:30	교육관 507호
2주12:30	교육관 407호
2주12:30	교육관 307호
2주12:15	갈릴리움
2주12:15	교육관 204, 205호
2주11:00	북지관 지하1층
특별오후 100원	교육관 207호
3주09:00~2:00	교육관102호
3주12:15 오후 12:15	갈릴리움, 배다니움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주간교육	충원 북지관
주간11:00	아 연 홀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소속 11.20	정현민 소속 11.20	박민기 소속 11.20	여성기 소속 11.20	류병호 소속 11.20
이종철 소속 11.20	김영훈 소속 11.20	여국근 소속 11.20	김교성 소속 11.20	안창덕 소속 11.20
방준영 소속 11.20	나광영 소속 11.20	정진호 소속 11.20	김우근 소속 11.20	고광환 소속 11.20
위건환 소속 11.20	김익환 소속 11.20	김정수 소속 11.20	장 훈 소속 11.20	임현덕 소속 11.20
이희석 소속 11.20	최종철 소속 11.20	하철철 소속 11.20	안지원 소속 11.20	이태복 소속 11.20
정종신 소속 11.20	양재용 소속 11.20	이성진 소속 11.20	조규호 소속 11.20	최성규 소속 11.20
이계영 소속 11.20	이경준 소속 11.20	이창수 소속 11.20	김준희 소속 11.20	윤수일 소속 11.20

■ 나전도사

■ 여전도사

정인희 92곡	신동자 42곡	윤인숙 32곡	한영준 12곡	김언식 17곡
홍순애 92곡	이옥주 62곡	김말자 52곡	안태순 82곡	김정연 13곡
조옥자 72곡	강덕필 12곡	최문실 112곡	전은희 12곡	김영순 13곡
김정자 152곡	이수경 192곡	김경희 142곡	이복순 192곡	류진희 192곡

■ 최안기도 카이그 ■ 저이디형지 나조지

- 전경남역, 정경수
- 전금희역사, 서문영
- 전이도차지, 김소연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